

상용직 14개월 만에 첫 증가했지만...일용직 23만명 ↑ '역대 최대'

고용부 '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 거리두기 완화 유지 및 작년 기저효과 영향 상용직 첫 증가했으나 임시일용 '역대 최대' 숙박·음식, 감소세 지속이나 감소폭 축소돼

코로나19 여파로 부진을 면치 못했던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유지와 상용직 첫 증가 전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와 임시·일용직 역대 최대 증가 등이 작용한 측면도 있어 고용 회복세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860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1822만4000명)보다 37만9000명(2.1%) 증가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 3월(22만3000명)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로 돌아선 이후 그 폭을 확대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4월 증가폭(37만9000명)은 2019년 8월(39만6000명)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4월 종사자 수 증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유지와 전년 동월 코로나19에 따른 종사자 수 감소가 기저효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가세를 유지해오던 사업체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해 3월(-22만5000명) 감소로 전환한 뒤 4월(-36만5000명)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바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지난달 상용직은 전년 동월보다 10만9000명(0.7%) 증가했다. 비교적 안정적 일자리인 상용직 수는 지난해 3월(-8000명) 감소로 돌아선 이후 감소세를 지

속했는데,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로 전환한 것이다.

다만 임시·일용직도 크게 증가했다. 전년 동월보다 23만4000명(14.0%) 증가해 지난해 10월(20만9000명)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을 경신했다. 정부의 공공 일자리 사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상용직이 증가로 전환하는 등 사업체 종사자 수가 두 달째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기저효과에 단기 일자리인 임시·일용직 증가폭 등을 감안하면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기 이르다는 애기다.

학습자 교사나 방문 판매원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포함된 기타 종사자는 3만6000명(3.3%) 증가했다. 지난 3월 4만1000명(3.8%) 늘며 2019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그 폭은 다소 줄었다.

산업별로는 거리두기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이 전년보다 3만1000명(2.8%) 줄며 15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다만 그 폭은 축소돼 감소로 전환한 지난해 2월(-5만3000명) 수준을 웃돌았다.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도 7000명 줄며 역시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지난해 10월(-7만9000명)

이후 그 폭은 크게 줄어든 상태다.

정 과장은 "그동안 제조업에서 7만명 내외 수준의 감소폭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전년 동월보다 7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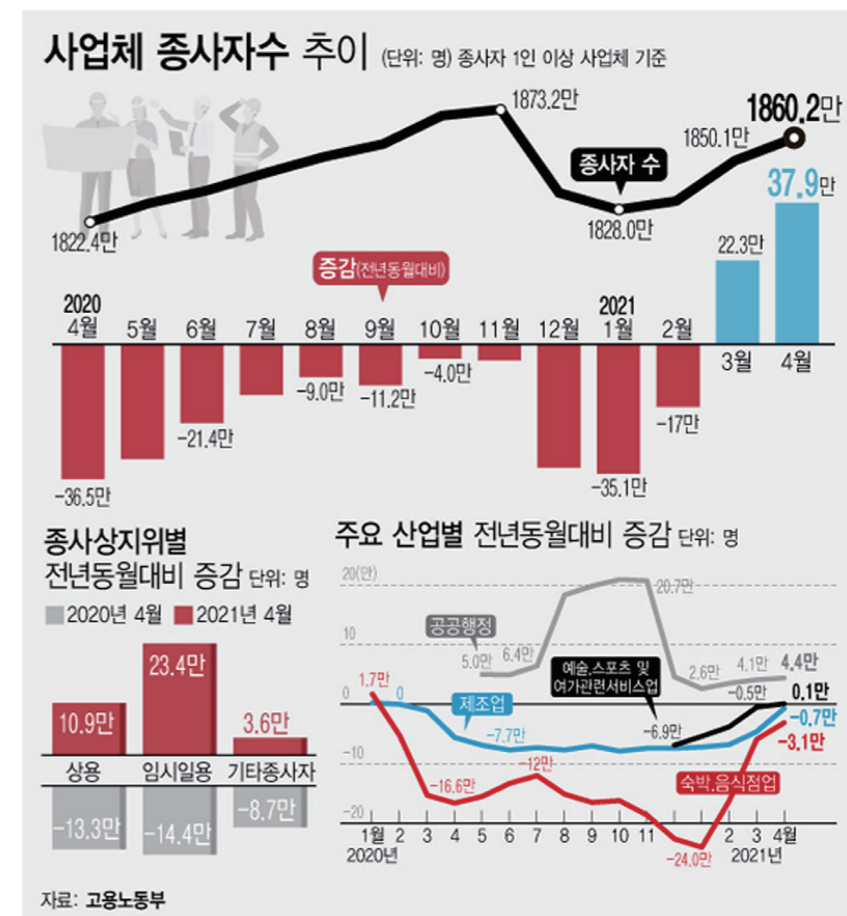
반면 학원을 포함한 교육서비스업은 거리두기 완화 조치 유지로 8만5000명(5.5%) 늘며 두 달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가운데 지난달 임직자는 전년 동월보다 15만9000명(19.4%) 증가했다. 지난 3월(17만7000명)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후 그 폭은 다소 줄었다. 채용이 18만3000명(25.0%)이었다.

반면 이직(퇴직)자는 1000명(0.1%) 감소했다. 자발적 이직이 3만2000명(11.5%),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이 4만5000명(10.1%) 증가한 반면 휴업·휴직 등에 의한 기타 이직은 7만8000명(49.7%) 감소했다.

정 과장은 "임직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이직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이런 영향으로 아무래도 종사자 수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



(세전)은 360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2000원(3.8%) 증가했다. 상용직은 379만5000원으로 4.2%, 임시·일용직은 169만4000원으로 2.1% 증가했다. 김민정기자



홈플러스 "6월1일은 '우유의 날, 소비 촉진 기여해요'"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홈플러스 월드점점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우유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1일 세계 우유의 날을 맞아 유기능 우유 12팩과 유기능 수건이 담긴 '매일 상하목장 유기능 우유 기획팩'을 론칭해 전국 모든 점포에서 5000개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

회복 조짐 보이는 내수...정부, 하반기에 '소비쿠폰' 쏜다

숙박·관광·공연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 중심 백신 접종 진행률·방역 상황 등 감안해 결정

정부가 소비심리를 부추기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숙박, 공연, 전시 등 8대 분야별 할인 쿠폰을 풀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6월 중하순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안'에 이런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내놓은 '20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내수 부양책 가운데 하나로 '소비쿠폰' 발행을 결정했으나, 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지면서 중단한 바 있다.

이 쿠폰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피해가 컸던 8대 분야를 중심으로 발행된다. 여기에는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산물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하면 3~4만원을 깎아주는 식이다. 같은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공연과 영화를 예약하면 각각 1인당 8000원, 6000원을 아낄 수 있다. 미술관은 1000~3000원 지원해주고, 박물관은 40% 할인을 제공한다.

국내 여행 조기 예약 할인 상품을 미리 결제하면 3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1만원을 깎아주기로 했다.

또한 실내 체육시설의 월 누적 이용액이 8만원 이상이면 3만원을 환급해주고, 주말에 외식업소를 5회 이용하면 다음 외식 때 1만원을 돌려주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소비를 살려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를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지난해 소비 쿠폰 발행을 결정했을 당시 정부는 전 국민의 3분의 1 수준인 약 1800만 명에게 관련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른 소비 촉진 효과는 약 1조원에 달한다.

서연숙기자

담양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오픈 '담양장터'

신규 3000원 적립금과 무료 배송, 15% 할인쿠폰

담양군이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소비문화 확산에 발맞춰 지역농특산물 판매 플랫폼인 '담양장터' 온라인 쇼핑몰을 개장한다.

1일 오픈하는 담양장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지역농식품 가공업체들이 모여 설립한 담양장터 주식회사 법인이 안정적인 품질관리와 공급기반을 갖춘 담양산 우수 농식품만을 판매한다.

온라인 쇼핑몰 오픈을 기념해 구매왕 선발 이벤트, 신규 가입자에게 즉시 사용가능한 적립금 3000원과 무료 배송 쿠폰 증정, 첫 구매 시 15% 할인 쿠폰 발급 등을 한다.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 검색창에 '담양장터'를 검색하면 쇼핑몰로 접속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전남도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와 연계한 담양장터 홍보,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 SNS 홍보, 라이브 쇼핑 판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담양장터 몰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형선 군수는 "담양장터 온·오프라인 쇼핑몰은 고품질 담양산 농특산물을 소비자와 연결해 주는 플랫폼으로, 믿을 수 있는 건강 먹거리가 다채롭게 구성돼 있다"면서 "코로나시대 비대면 유통망을 정비하고 강화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배민, 서빙로봇 대중화 연다...전국 외식 매장 보급 확대

SFG신화푸드그룹 직영 매장에 연내 100대 공급 예정 대중화 위해 월 이용료 47% 할인된 가격에 보급 중

SFG신화푸드그룹 관계자는 "급변하는 외식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트렌드에 맞춰 지속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직원 체력 부담을 덜고 고객에게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빙 로봇 도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배민은 지난달 단기 렌탈 상품을 출시하는 등 서빙로봇 대중화를 위해 문턱을 낮추고 있다.

외식업 사장님들이 부담 없이 서빙로봇을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한 달만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상품부터 최대 24개월까지 기간별로 다양한 상품을 운영 중이다.

또 최대 47% 할인된 가격으로 서빙로봇을 이용할 수 있는 할인 이벤트도 다음달까지 진행한다.

김요섭 우아한형제들 로봇사업실장은 "인심푸드테크와 비대면 서비스가 외식업계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서빙로봇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며 "우아한형제들은 서빙로봇을 시작으로 조리로봇, 패키지 솔루션 등 다양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된 스마트 레스토랑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딜리플레이트는 기능과 제조사에 따라 5개 모델로 나뉘어 전국 305개 식당을 누비고 있다.

김민정기자



'배달의민족'(배민)이 서빙로봇의 대중화 시대를 열고 있다. 배민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SFG신화푸드그룹이 운영하는 외식 매장에 서빙로봇 '딜리플레이트' 100대를 연내 공급하기로 했다고 5월31일 밝혔다. SFG신화푸드그룹은 한식 브랜드 우설화·전지연·송도갈비·일식 건자·중식 하인선생·카페 블루가든·한옥 베이커리 카페 등 20여개 외식 브랜드를 운영 중이며, 전국적으로 110여개 직영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SFG신화푸드그룹은 대형 매장을 중심으로 매장당 평균 3대의 딜리플레이트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미 5개 매장은 서빙로봇 서비스를 도입했다.